



‘두려워하지 마라.’



정유용
마크 신부
중앙경찰학교 담당

찬미 예수님!

제가 사목하고 있는 ‘중앙경찰학교’와 ‘진천 선수촌’은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이 10-40대입니다. 본당에서는 보기 힘든 연령대죠. 이력을 봐도 화려합니다.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경찰에 합격한 친구들이거나, 종목별로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최고의 선수들이죠. 이런 그들에게도 공통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불안’이에요. 이미 경찰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계속되는 평가와 시험 앞에서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큼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역시 그렇게 온 힘을 다해 훈련해왔고, 수많은 대회를 치르면서도 국가대표 선발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걱정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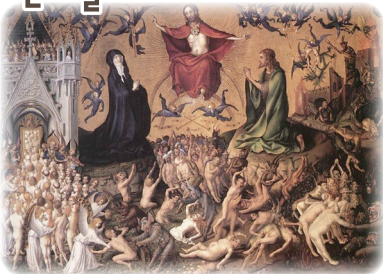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성적이 낮으면 사람들이 미워할까봐.’, ‘능력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힐까.’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성적이나 시험 결과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된다?’, ‘육 안 먹게 제대로 해라?’ 저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노력과 고민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존중해주세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짙다는 말이 많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자신의 노력과 선택에 불안해하는 청년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고,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까지도 알고 관여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두셨다고, 그런 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하시죠. 어떤 심판이나 평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봐주는 것, 삶의 숙고 끝에 내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 주는 것, 나아가는 우리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는 것이 하느님의 시선이며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느님께서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불안한 속에서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지지해줍니다. 부디 여러분도 그런 아버지 하느님을 믿고 불안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당당하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으로 위로와 행복을 찾는 신앙생활 되시길 응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최후의 심판’, 스테판 로흐너 작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28).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모인 백성에게 하는 인사¹⁾

김형민 안토니오 신부 / 교구 복음화연구소장

성호경에 이어서 주례 사제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인 교우들을 향해 팔을 벌려 인사합니다. 이 인사는 공동체에 “주님의 현존”을 알리기 위함이며, “이 인사와 백성의 응답으로 함께 모인 교회의 신비”를 드러냅니다.²⁾

미사 경본에는 인사 양식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다른 적절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³⁾ 미사 안으로 들어온 인사는 3세기 문헌인 히벨리토의 「사도 전승」 속 「감사기도」(Anaphora)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대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4~5세기에는 이 인사가 시작 예식에도 도입되었는데, 보통은 본기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거치며, 인사의 기능보다는 기도를 준비하는 권고로 인식되었습니다. 현재 「미사 경본」에서는 그 위치를 제대 인사와 시작 기도인 성호경 뒤로 옮김으로써, 주님께 먼저 인사하고 교우들과 인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따온 인사는 주님의 현존이나 주님의 구원 은총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 여러분과 함께”는 사도 바오로의 2고린 13,13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전례서 원문에는 성경과 같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선물인 은총과 사랑, 친교에 중점이 맞춰집니다. 다만 한국어 미사 경본에서는 이를 의역하면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보다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인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시 바오로 사도의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로마 1,7; 1고린 1,2; 갈라 1,3 등).⁴⁾ 이 인사는 평화를 기원

하는 유대인들의 인사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의미가 더해져서 그리스도교 인사로 발전된 것입니다. 사도 시대부터 이미 평화와 구원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옛 안티오키아 전례와 라틴 전례의 주교 미사에 나타나며, 평화를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준 구원의 열매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양식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는 신·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인사이자(판관 6,12; 룻기 2,4; 1열왕 17,37; 루카 1,28; 2테살 3,16), 대표적인 전례 인사입니다. 현재 미사 통상문에는 네 번 나오는, 주님께서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주교가 미사를 집전할 때는 전통에 따라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사합니다. 일찍부터 주교의 인사로 쓰인 이 말씀은 사도의 후계자인 주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며(요한 14,16.23 참조),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로마 12,5 참조). 주례 사제의 인사는 미사를 통하여 주님의 현존 안에서, 주님과 일치될 이루도록 초대하며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사제의 인사말에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대답하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만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전례 시편 23,4)

1) 「미사 전례」 이흥기, pp.104-107 참조.

2) 미사 경본 총지침 50항 참조

3) 다른 적절한 인사의 대표적인 예는 「성당과 제대 봉헌 예식」 30항에 나오는 인사말로,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는 “성경”에서 가져온 다른 인사말을 할 수 있다.

4) 한국어 미사 경본은 성경의 표현을 의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6월 이야기

이덕자 헬레나 / 수필가, 교구 기톨릭 문인회

보이는 모든 풍경이 진초록으로 빛나는 유월입니다. 과실나무들은 벌을 유혹하던 꽃이 진 자리마다 앙증스러운 초록 열매를, 씨앗들을 토실하게 살찌우고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둔 푸른 생명들은 뜨거운 햇살에 움츠려 있다가도 단비가 내리면 일제히 하늘을 우러러 청춘의 송가를 부르며 환희의 춤을 춥니다. 이런 싱그러운 자연을 곁에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나이 들면서 더욱 실감합니다.

산골짜기 개울을 따라 올라오며 형성된 마을의 끝자락에 외딴집을 짓고 이사 온 지 26년. 처음 만났던 반딧불이나 가재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사이에 수돗물이 들어오고, 도로도 2차선으로 포장되면서 이웃집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엔 우리 집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던 살림집이 딸이 운영하는 카페로 변신하게 된 것이지요. 개업한 지 일 년 반. 우려와 격려를 동시에 받으며 시작한 일이지만 나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노후의 무료함을 잊고 정원 돌보기에 진심이고, 저는 자청해서 맡은 카페 뒤치다꺼리로 잠시도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갑자기 낯선 시골에서 카페지기가 된 딸도 처음보다는 훨씬 익숙해진 솜씨로 손님맞이를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에 살 때보다 많이 건강해진 듯하여 공으로 누리는 이 맑은 공기와 신선한 바람, 빗소리와 자연 햇살이 새삼 더 고맙습니다.

가흔처럼 세계는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의지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역사는 저지르는 자의 몫이다!'와 '최선의 하느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가 그것입니다. 이 말뜻에 100% 공감하기에 확

고한 믿음으로 매사 이 말을 앞세워 판단하고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겁 없이 새로운 일을 잘 저지르는 편이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땐 화도 잘 냅니다. 그러나 쉽게 좌절하거나 오래 슬퍼하진 않습니다. 언제나 도전은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령 실패했어도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음을 알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사 새옹지마'란 말도 참 좋아합니다.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 중에 넓은 정원을 가진 전원생활을 부러워하는 이가 많습니다.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아는 이들은 그간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거친 제 손을 잡고 위로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 사는 동안 수시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난제 앞에서 많은 것을 결정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그로 인해 넘어지고, 실망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 와중에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응원이 필요할 때 기도하듯 되뇌면 위로가 되는 한 구절을 가졌다면 그가 곧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지요.

유월, 강렬한 에너지로 푸르름이 더해지는 싱싱한 여름입니다.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느님의 선한 이끄심을 믿고, 포기했던 희망 하나 끄집어내어 용기 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계절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AI 생성 이미지 (ChatGPT 활용)

청주교구 제4대 교구장 김종강 시몬 대주교 송별미사



• 일시 _ 6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5월 26일 김종강 시몬 주교님을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로 임명하심에 따라 6월 24일 전임 김종강 대주교님께서 대구대교구 부교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김종강 대주교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2회 교구장배 파크골프대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5월 25일(월) 청주시 미호강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교구장배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교구 산하 10개 지구에서 선발전을 거쳐 올라온 16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린 경합을 벌였으며 구룡 성당의 '구룡패밀리'팀이 단체전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대회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으며, 자연 속에서 교구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자료 제공 _ 박점선 프란치스코 / 교구 평협 홍보부장)



교구청

교구 법원 공사

아래 공시되신 분은 6월 22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_ 김결

문의 _ 210-1705 ※주말, 공휴일 휴무

참사회의

일시 _ 6.24.수.14:30

장소 _ 교구청

찾아가는 위령회 기본교육

일시 _ 6.27.토.09:00

장소 _ 용암동 성당

문의 _ 210-1731 선교사목국

대전가톨릭대학교 응시자 교구 면접

일시 _ 6.27.토.10:00

장소 _ 교구청

문의 _ 210-1750 성소국

음악피정 '잠시 멈춰 돌아서기'

일시 _ 6.27.토.13:00-17:30

장소 _ 연풍 성지

강사 _ 정효준 라우렌시오 신부(연풍성지 담당)

문의 _ 210-1737 가정사목국

※사전 접수자만 참석/접수 마감(추가신청 불가)

2026 어머니학교 '행복한 엄마, 행복한 자녀'

일시 _ 7.4.토.09:00-18:00

장소 _ 교구청

대상 _ 만 55세 미만 어머니 선착순 40명

회비 _ 3만원

주제 _ 1) 자녀와 소통하기(경청반영실습)

사례를 통한 방법 찾기 및 질의응답

2) 어머니의 영성

강사 _ 1) 박대선 시메온(서툰어른심리상담센터장)

2) 김병찬 베드로 신부(교구 가정사목국장)

접수 _ 6.24.수까지 210-1733 가정사목국

미사·피정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6월 피정

일시 _ 6.25.목.09:00-12:00

장소 _ 서운동 성당 ※희망하는 모든 신자

강의·미사·김성우 이사악 신부

주제 _ 자기 자신을 알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일시 _ 6.25.목.10:00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주례 _ 교구장 직구대행

주최 _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전례꽃꽂이 수료미사

일시 _ 6.26.금.17:00

장소 _ 교구청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일시 _ 6.27.토.11:00

장소 _ 새터 성당 ※10:00 회합

문의 _ 010-5115-8781 회장

해외선교 후원회 미사

일시 _ 6.27.토.11:00

장소 _ 감곡 성당

봉암성지 떼제피정

일시 _ 6.27.토.13:00-17:00

장소 _ 맹동 성당

문의 _ 010-5215-8607

※성령기도회 _ 매주 금.20:00-토.00:30

금요철야 '성령의 9가지 은사'

일시 _ 7.31까지 매주 금.20:00-토.01:00

장소 _ 초정성령회관 ※셔틀버스 운행

문의 _ 213-9103, 010-5482-6744

초정성령회관 1박 2일 치유피정

일시 _ 매일 마지막 주.토.14:00-주일.14:00

회비 _ 2만원/청소년 무료(1박 2일 3식)

문의 _ 213-9103, 010-5482-6744

※셔틀버스 운행(초치원역, 청구고속터미널)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_ 6.26.금.14:00

장소 _ 수동 성당

문의 _ 02-3673-2525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추자도 _ 7.1-4, 9.1-4, 10.7-10

우도 _ 7.18-20, 7.24-27, 7.29-31

8.1-4, 8.8-10, 8.14-16

운영 _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내용 _ 성 이시돌에서 섬과 제주 여행

한라산, 올레길, 성지순례

접수 _ 02-773-1455, 064-796-4182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하느님, 바람, 나(힐링피정) _ 7.3-5

효소단식 _ 7.9-12, 8.4-7

성경완독 _ 7.24-8.1, 8.14-22

문의 _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제주 산들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올레길 순례

대상 _ 개인, 각본단체에 맞는 프로그램진행

마라도 _ 7.3-5, 7.10-12, 8.21-23

한라산 _ 7.17-19/우도 _ 7.24-26

추자도 _ 9.4-7, 9.11-14, 10.31-11.3,

11.14-17, 11.26-29

올레바닷길 _ 9.17-19/억새길 _ 10.14-16

문의 _ 064-732-4702 면형의 집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_ 7.31.금.14:00-8.2.주일.16:00

장소 _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소화잘되는내과

건강검진, 위·대장 내시경, 소화기내시경전문의 2인 진료
태양빌딩 2층(가경동 홈플러스와 모태안산부인과 사이)

원장 이승호 바오로 이희승 | **716-2885**

성지순례 전문 미카엘여행사

9.7, 10.13, 11.10 제주도 3일 / 9.17 동유럽 6개국
10.2, 11.17 나가사키 4일 / 10.2, 11.17 홍콩,마카오 4일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정상훈 미카엘 | michaeltour.co.kr

나자렛투어 해외성지순례

27,22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QR 449만원
27,5.3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루르드) 12일 QR 499만원

총괄 유창원 사도요한 | **1577-7029**
www.nazarethtour.com

가톨릭 여행사

이탈리아 프랑스 루르드 12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12일

대표 최도형 야고보 | **010-5235-3533**

청주탐엔도내과

당뇨,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내분비질환
당일 검사 및 진료 가능/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국샘빌딩 5층)

고선희 미카엘라 | **715-7572**
홍익실로 사

제이와이 JY 어학원

초등부 파닉스, 기초영어 / 중등부 내신, 영문법
고등부 내신, 수능대비 / 성인회화 / 오픽:1:1

원장 박주영 안드레아 | **233-0579**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35, 2층)

대상 _ 중학생 이상 미혼 남녀
회비 _ 15만원
문의 _ 010-5490-5345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일시 _ 8.6.목-9.주일
장소 _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왜관수도원 내)
회비 _ 42만원(1인 1실)
지도 _ 허성준 신부 외
문의 _ 010-4731-2468

교육·모집

상반기사회복지기관 신입직원 교육

일시 _ 6.25.목,10:00
장소 _ 교구청

말씀여행 특강 '말씀여행과 미사'

일시 _ 6.28.주일,14:00-16:00
장소 _ 증평 성당
문의 _ 838-8141 증평 성당 사무실

봉명동 성당 사무장 모집

자격 _ 세례 5년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사무행정, 컴퓨터 활용, 회계업무 가능자
서류 _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문의 _ 264-3351

직업적응훈련 참여 장애인 상시 모집

일시 _ 월-금,10:00-16:00
대상 _ 만18세 이상-만45세 이하 등록중증장애인
이용료 _ 월 12만원(이용료/식비 각 6만원)
기타 _ 월 80% 참석시 훈련수당 10만원 지급
문의 _ 275-7411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취업희망 구직장애인/장애인채용 구인사업체 모집

구직 _ 만 18-60세 청주거주 등록장애인
구인 _ 4대 보험 가입 사업체
문의 _ 295-2505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기타

성직자·수도자·평신도 고해성사

일시 _ 매주 월,14:00-15:30(5주 제외)
장소 _ 내덕동 주교좌 성당

재속프란치스코회 청주엘리사벳형제회

일시 _ 6.27.토,13:00
장소 _ 사직동 성당

재속프란치스코회 과산루게치오형제회

일시 _ 6.28.주일,13:00
장소 _ 과산 성당

장애인 그림공모전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대상 _ 청주시 내 등록장애인
규격 _ 8절 백색용지, 직접 그린 그림
접수 _ 7.7.화-20.월 ※방문/우편(신청서 필참)
문의 _ 275-7411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청주주보 광고란 이용을 원하는 업체는 교구청 전산홍보실(☎210-1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뒷목문화사 Tel : 273-5000~2, E-mail : dewmok@naver.com 인쇄·출판·광고·성경필사용지 제작·판매

2026 양업고 행복한 캠프(중1-3학년)

일시 _ 7.17.금-19.주일
장소 _ 양업고등학교
접수 _ 7.7.화,10:00부터 www.yangeob.hs.kr
회비 _ 15만원(접수완료 후 입금)
문의 _ 260-5076

6월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교구 홈페이지 '가정기도' 게시판 열람가능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센터 프로그램

분야 _ 이콘, 전례초 조각, 성가
캘리그래피(기초/심화, 자격증반)
전문영성상담(유재선 신부), 성지순례
문의 _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배론성지 내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피정 및 대관 신청 안내

내용 _ 본당 혹은 단체, 필요에 따라
피정 신청 가능(위탁/자체피정)
인원 _ 최대 160명(숙식 제공)
문의 _ 651-4563, baeron.or.kr



청주 대목구 설정
(1958년 6월 23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청주교구 순례자를 위한
목주기도 3천만 단 봉헌운동
누계 2,932,173단

수도회 성소모임

| 수도회명 | 일시 | 장소 | 문의 |
|--------------|---------------|------------|---------------|
| 끈베틀알프란치스코수도회 | 7.5.주일,14:00 | 서울 혜화동 수도원 | 010-4344-1997 |
| 성가소비녀회 | 6.28.주일,15:00 | 서울 길음동 총원 | 010-5137-7580 |

흙표 흙침대(청주점)
일상을 바꾸는 아트 퍼니처!
흙표흙침대와 함께~ (전속모델 : 장윤정)
김영석 프란치스코 | **273-4733**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5(모충동)

증평 현대 장례식장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환영, 신자 특별 우대
증평성요셉공원묘지관리위원장 김영태
김영태 프란치스코 | **010-5465-2964**
박태수 요셉 | **010-4350-5713**

경인구 한의원
공진단 / 경옥고 / 보약 / 척추관절 / 비만 / 성장
침약 의료보험(오창 국민은행건물 4F)
원장 경인구 토마스아퀴나스 | **241-0007**

참조은 정형외과 의원
관절, 척추, 통증, 척추교정재활크리닉
도수, 체외충격파 치료 및 물리치료
소창성 비오 | **213-0080~1**
권현숙 비아 | (fax 213-0016)

민 안과 의원
라식·라섹수술, 20년, 김원장라섹
백내장, 쌍꺼풀, 특화수술·각종특수검사
원장 김병석(베드로) | **222-8080**
원장 김소연(테레사) | 지하상가 중간 신호등 북쪽

카톨릭병원 정형외과
"관절 및 척추질환 치료병원"
사직동 사거리 교보생명 맞은 편
김지묵 레 오 | **274-4401~2**
김지영 라파엘라